

나로우주센터 연내 위성발사 불발

러시아, 발사대 설치 지연 등 들어 로켓 국내 인도 늦춰

기술적 문제 재검토...내달중 시기 결정

올 12월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릴 예정이던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KLSV-1) 자력 발사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시스템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러시아가 1단 발사체(액체로켓)의 국내 인도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러시아가 제작한 1단 발사체의 국내 인도와 고흥에 건설 중인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설치까지 1~2개월씩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31일 KLSV-1 발사점 검단에서 일정 지연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을 재검토해 8월 중 발사시기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측이 현재 한

국의 발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의 발사 준비가 내년 1분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실제 발사시기는 내년 2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LSV-1 사업은 지난 2004년 항우연과 러시아 연방우주청·호루니체프사(社)가 ‘발사체 시스템(KSLV, Korea Launch Vehicle System) 협력 계약’을 맺고, 1단 발사체(하단부)는 러시아 호루니체프사가, 2단 발사체는 항우연이 국내 기술로 공동 제작해 올 12월 안에 나로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과부와 항우연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10일 재공할 예정이던 지상시험용발사체(GTV)가 국내에

인도되지 않았다. 운송에 필요한 발사체 거치기구인 치구(齒具) 제작이 늦어져 1개월 가량 지연, 8월 초께 인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설치도 당초 6월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해외부품 조달 지연으로 8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러시아 호루니체프사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설치에 늦어지자 최근 항우연 원장 앞으로 공식문서를 보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발사대 시스템의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다며 발사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할 것을 항우연 측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표현적인 이유 이외에도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건설을 놓고 러시아와 항우연 간에 의견 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 측은 ‘한-러 기술보존협정’

의 체결 지연으로 발사대 건설 관련 자료가 지난해 3월에야 항우연에 건네지면서 기술적인 면 등을 고려할 때 발사대 건설에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내년 초 발사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항우연 측은 관련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6개월 이상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발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KSLV-1 발사점검단이 이달 말 발사시스템 설치와 성능시험 완료 일정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 8월 중 발사 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발사 시기는 러시아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고 연내 발사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몽골 어린이들 환상의 공연

2008 동아시아어린이 공연예술제에 참가한 몽골 공연단이 23일 광주 문예회관에서 ‘이구나 춤’의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광주시 등이 주최하는 동아시아어린이 공연예술제는 중국, 몽골 등 6개국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4~2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콘텐츠기술원 ‘재검토 용역’ 보류

광주 유치 불씨 살렸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유치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일보 7월 21일자 1면〉

23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3일 “문화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광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말께 철회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문화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공식 의뢰한 것이어서 문광부가 철회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철회 배경과 관련, 이 의원은 “문광부 측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용편의 분석 등 지나치게 경제적 효용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문화콘텐츠기술연구

원의 광주 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 조사 의뢰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면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이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광주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타당성 조사 중단은 일단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의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문광부가 내년 1월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뼈 있는 쇠고기

28일 국내 반입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도축·가공된 미국산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28일 국내에 반입된다.

육류 수입업체 ‘네르프’는 새로운 한국 수출용 품질평가프로그램(QSA)에 맞춰 생산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 2.2t을 28일 새벽 항공기편으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네르프가 미국 수출업체 ‘크리스톤 파스’에서 공급받은 초이스급(한우 1등급 해당) 쇠고기로 뼈째 썬 ‘LA갈비’를 비롯해 짐·탕용 등 대부분 갈비 부위다.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2003년 12월 이후 4년7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내에 반입된 쇠고기는 이후 열흘 안팎의 정밀검역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10일께면 시중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격은 100g당 1천500~1천700원 선이라고 네르프는 전했다. /연혜스

“한나라 지도부 호남 배려 소홀했었다”

박희태 대표 밝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한나라당 지도부가 호남에 대한 배려에 소홀했었다”고 인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소속 사 기자들과 한나라당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 때 충분한 연습 및 수련 기간을 거쳤어야 했는데 실기했다”며 “과욕을 앞세운 인수위가 성과에 급급,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정부 출

범 이후에도 잇따라 터진 악재에 대해 초기 대응에 실패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표는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감동의 국정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과 관련, 박 대표는 “과거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호남 인사를 비례대표에 공천한다고 해놓고) ‘무거웠어야 했는데 실기했다’며 ‘과욕을 앞세운 인수위가 성과에 급급,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정부 출

범 이후에도 잇따라 터진 악재에 대해 초기 대응에 실패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그는 “최근 지방직 최고위원에 호남 인사(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를 기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며 “호남 지역의 민심과 희망을 한나라당의 정책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 박 대표는 “기초 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생활 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립중앙도서관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c.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3 / 062-222-8111

10215300-9999